

# 생명이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

- 본회에서도 양계산물 소비촉진 행사 가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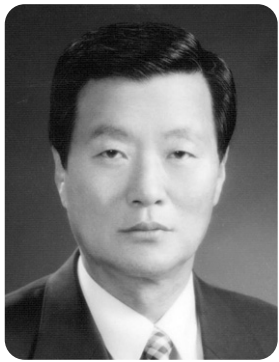
제 12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행사는 지난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에 걸쳐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 외 32개 주요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올림픽공원 특별행사장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기관장 및 농민단체장 등 농민대표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농촌 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들에게 훈장, 포장 등이 수여됐다. 특히,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양계부문에서는 본회 장대석 고문(전 회장)이 국무총리상, 민균홍(충청농장) 이사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지난 1996년도에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11월 11일은 한자로 十一월 十一日(土월 土일)로 흙은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시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사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I. 내고향 특산물 만남, II. 축산물 홍보관, III. 내고향 지킴이, IV. e-비즈니스 장터, V. 체험홍보관 등 총 5개 주제로 나누어 부스행사를 벌이면서 우리농산물 전시와 판매 및 시식행사를 벌여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야외행사로 농촌어린이 밴드공연, 농촌사랑예술단 축하공연, 농림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 직장 동아리 회원의 밴드 공연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절미 만들기, 짬뽕에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시민과 한마음을 나누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편,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한양계협회 부스도 참가하였다. 닭고기, 계란으로 만든 각종 요리전시와 함께 계란말이와 마들렌 무료 시식회를 열어 주부는 물론 아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계란을 이용한 요리책자'를 무료배부하면서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돕우기도 했다.



▲농업인의날 행사에서는 본회 장대석 고문이 국리총리상을 수상 하였으며(좌), 민균홍 이사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우).



▲대한양계협회 부스

▼분회에서는 계란으로 만든 마들렌, 계란말이 시식 행사를 벌였다.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야외광장에 마련된 1,111분 초대형비빔밥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분회부스에서 계란요리를 맛있게 먹는 농림부 임상규 장관

▼계란요리 맛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계란요리를 먹으며 미소짓는 아이들

